



드림꽃편지 659

2023.12.22. 동지  
<https://cyw.pe.kr>

## 깃털보다 가벼운 권사님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어떤 권사님이 주일예배 마치고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항상 앉던 자기 자리(일종의 상석)에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잘 모르고 앉았나 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을 무시했다며 빠져서 교회에 다니네~마네 한다며 그 교회 목사님이 친구인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전혀 '수덕의 삶'과는 거리가 먼 가볍고도 가벼운 깃털과 같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은 신앙의 시작일 뿐이며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과 투쟁하며 자신을 억제하고 포기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완덕의 완성을 위하여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수덕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천적이기는 하나 원리적인 고찰에만 그치는 '윤리신학'과, 구체적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작용에 완전히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신비신학'으로 딱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보수'와 '진보'라고 표현합니다. '수덕의 삶'은 윤리신학과 신비신학의 중간쯤에서 두 신학을 하나로 합쳐주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이 바로 '수덕의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수덕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특히 로마제국의 박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범적인 수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최용우 올립니다.



all is calm, all is bright

109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통일 109)

J. Mohr, 1818  
Trans. J. F. Young

Silent night, holy night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눅 2:12)

성탄  
STILLE NACHT: IRREG.  
F. X. Grüber, 1818

보통으로

1.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2.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3.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4.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예수 탄생의 밤이 '어둠에 묻혔다'고?

'어둠에 묻힌 밤'을 영어 찬송으로 보면

All is calm, all is bright

'모든 것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빛나네'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고

어둠이 '겉힌 밤'이고만...

“올해부터 나는 이 엉터리 찬송은 한국말로로는 안 부를 거”

## 하나님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  
토마스 아퀴노스의 말대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또는 가장 높은 인식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다.  
인간의 유한한 인식 능력으로 파악된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 회개50 거짓말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다가 성탄절 새벽에 잠시 CTS-TV를 보았습니다.

한 분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과연 그 명령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안 지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중심의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농촌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한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보다 더 오지인 외딴 섬으로 가서 목회하길 원하신다면 저는 기쁨으로 순종하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열악한 환경인 외딴 섬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요”

거짓말 설교를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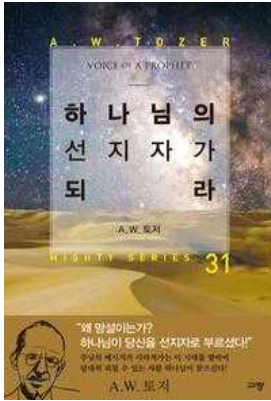
지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더 하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셧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라



토저 마이티 시리즈 31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312쪽 22,000원 규장 2022

“왜 망설이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선지자로 부르셨대!”  
주님의 메시지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

## 1. 선지자의 음성

신약시대 교회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격동의 시대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 했습니다. 교회가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견고하게 설 수 있었지만, 선지자들의 음성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 교회는 즉시로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 사이버 이단들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 2. 묻혀버린 음성

오늘날 교회에서 선지자들의 음성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한 세상 문화가 내는 소음과 파열음에 선지자들의 음성이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기업의 마케팅과, 프로그램과, 지역 활동과,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짜릿한 일에 더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 3. 선정주의

오늘날 매신저들은 어떻게 하면 더 선정적(煽情的)이고 자극적으로 메시지를 전달 하여서 사람들을 휘어잡을지 고민 합니다. 선정적인 것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기 때문에 신문의 첫머리를 장식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선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전혀 선정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 4. 감정주의

오늘날 청중들을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메신저들이 보입니다. 주로 부흥사들이 청중들을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감정선을 건드려 웃기고 울리고 합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불같이 일어났다가 물같이 사그라들면 그만입니다. 논리나 지성, 합리주의, 이성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감정을 내세워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5. 연예오락

오늘날 메시지에 연예오락적인 요소를 적용하여 재미를 추구하는 메신저가 보입니다. 그들은 거의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수준의 말장난을 보여주어 청중들이 시종 일관 웃음바다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나, 순교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웃으면서 개그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요?

#### 6. 자기의 유익을 구함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비방합니다. 옛날에 어떤 늙은 설교자는 진로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싶다면 주의 종(목회자)이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의 종의 말을 거역하면 육교에서 굴러 다리가 부러진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다리나 부러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 7. 왜곡된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선별하고 왜곡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자기들 맘대로 선택하고 고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고 ‘진노’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복 받으라고는 하는데 ‘회개하라’고는 안 합니다.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목사와 교회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 8. 잘못된 인도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야 하는데, 자기와 자기 교회만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공명심과 자기 자랑만 있을 뿐,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어거스틴)

#### 9. 엉터리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은 시시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계속 추종

하도록 중독성 강한 인스턴트 음식을 먹입니다. 이 독성 음식은 심리학 이론 조금, 감동 이야기 조금, 신학 조금, 개인의 자랑거리 조금씩 짜깁기 하여 입에 달달한 설교를 만드는데 탁월합니다. 설교 말미에 '복음'을 살짝 엮어서 설교로 위장하는 선수들입니다.

## 10.시대의 소리

참 선지자는 그 시대에 들려질 하나님의 음성이 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도록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우리 시대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고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합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옳은 것, 바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 11.있는 그대로

참 선지자는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백성들은 메시지를 들을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라고 전하는데 소극적이거나, 반응이 좋은 메시지만 골라서 전하면 안 됩니다.

## 12.하나님의 마음으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속이면 안 됩니다. 저는 자신의 마음 상한 것을 하나님 핑계 대며 교인들을 무섭게 야단치고 심판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매 시간이지만 그냥 일어나서 걸어 나가버리고 싶은 것을 꼭 참았습니다.

## 13.메시지 전달자일 뿐

참 선지자는 주신 메시지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선지자는 자신의 일신(一身)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메시지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아무나 뒷동산에서 데려다가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 14.현재라는 상황

참 선지자는 언제나 '현재'라는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는 그분의 관점에서 본 현재 상황을 정확히 그려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사55:8)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 그분이 정죄하시는 것은 상황을 반전시켜 사람들을 본래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 15.진리는 양날의 칼

참 선지자의 메시지에 담긴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쪽과 저쪽을 모두 자를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고, 그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6.선지자는 중개자

참 선지자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다음에 빠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이지 선지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맞볼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선지자의 능력 밖의 일이니 선지자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17.끓주린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성경, 교회, 선생, 전도자, 찬송가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공허하고 끓주린 마음이 있었고 그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오늘날 화려한 스펙이나 백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끓주림입니다.

### 18.영적 체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증이 있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사도들, 심지어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증이 있었습니다. 확증이란 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확증, 내적 인식, 즉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증거를 소유한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독서일기 -최용우

## 총각

대전역 앞  
 로얄사진관 뒷골목  
 인쇄소 가는 길  
 총각 쉬었다 가세요  
 예쁜 아가씨 있어요

낮선 아줌마가  
 내 손을 잡는다  
 오! 아직도 나를  
 총각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나 55세임)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



→ 총각무

[덧글]

최용우/ㅋㅋㅋㅋ 이 골목을 지나갈 때는 절대로  
 아주머니들하고 눈을 마주치면 안된다.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행복**

최용우 지음  
 210쪽(울컬러) 13600원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기쁨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기쁨**

최용우 지음  
 210쪽(울컬러) 13400원

## 그리스도교와 플라톤주의 비교



### 271.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기적은 절대적 신빙성을 지닌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시73:28) 예언자는 ‘재물을 많이 소유한다거나 왕의 용포를 입거나 왕관을 쓰는 게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몇몇 철학자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게 복이라 말하기도 한다.

### 272. 보이는 희생은 보이지 않는 희생의 조짐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미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정을 하나님께 드린다. 또한 뜻있는 언어를 하나님께 바친다. 우리는 이처럼 제사를 올리면서 그분에게만 보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올린다. 바로 그때 선함과 경건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시편103:20), 그러니까 모든 초능력적인 권세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더불어 기뻐하며 우리를 최대한 돕는다.

### 273. 가장 고귀하고 참된 희생을 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중개자는 종의 모습(빌2:7)을 취하시고 하나님과 인간들의 중개자(딤후2:5)가 되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뿐인 하나님 모습으로 성부와 함께 제물을 받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제물을 받기보다는 종의 신분으로 제사에서 제물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피조물에게 제사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제사를 올리는 제사장이면서 자신이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되기도 한다. 중개자는 언제나 교회에서 바치는 제물이 진실을 나타내는 것이어야만 하고 나아가서 교회는 그를 머리로 삼은 몸이기에 그분을 통하여 교회가 스스로를 바치는 법을 배운다.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올린 제사들은 이런 참된 제사의 다채롭고도 다양한 상징이었다. 한 가지 일이라도 질리지 않으려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처럼, 제사도 온갖 모습으로 나타났다. (계속)

## 수덕의 삶



### 1. 지금 일어나 돌아가자

수덕의 삶은 언제부터 살아야 합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부터입니다. 한번 솔직히 따져봅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길거리 전도자들은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하고 외치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믿음’이 생겨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면 창문을 열어야 하고,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입으로만 ‘믿는다’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이나 사변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탕자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눅15:20) 아브라함은 75세때에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장에 서성이던 일꾼은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영혼의 원수들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잊고 있던 영적 싸움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목적지와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새롭게 살겠다고 지금 일어서야 합니다. 일단 일어났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창9:16) 언제까지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름뿐인 신앙인으로 존재만 할 것입니까? 지금 바로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합시다. (7662)

## 2. 연약한 인간

수덕의 삶을 시작하면서 가장 명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 교부들은 수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일부터 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완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 즉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사 5:21)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있는 체 말라.’(롬12:16)고 했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나지만,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나라’(마11:25)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 일어서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맘먹은 대로 수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수덕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야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7663)

## 3. 마음의 밭

수덕의 삶은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씨뿌리는 자의 비유’(마 13:1-23, 막4:1-20, 눅8:4-15)를 보면, 씨뿌리는 자는 씨를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은 곳 아무데나 마구마구 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씨뿌리는 사람은 애초에 씨가 자랄 수 없는 길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막 뿌렸는가? 처음부터 좋은 밭에만 뿌렸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는가?”

씨는 ‘말씀’인데 말씀(복음)은 온 세상 어디든 누구든 언제든 어떻게든 무조건 뿌

려져야 합니다. 말씀을 뿌리면 안 되는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만약 말씀을 차별해서 전한다면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나 같은 사람이 말씀(복음)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길에 떨어진 씨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고 새들에게 주워 먹히지만 앓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돌밭도 돌을 골라내면 기름진 땅이 될 수 있고, 가시덤불도 거두어 내면 뿌려진 씨들이 잘 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옥토'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지 몰라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그렇게 막 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씨를 받아들이는 나의 발(마음)이 문제입니다.

만약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원한다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면서 밭을 경작할 것입니다. 햇볕과 비와 바람으로 씨를 키우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밭은 농부가 관리해야 합니다. 수덕의 삶은 내 마음 밭을 말씀이 잘 자라도록 경작하는 것입니다. (7664)

### 3. 보이지 않는 싸움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나'를 차지하기 위하여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영'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마음을 여느냐에 따라 나는 '악한 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앙인으로 행세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으면 그냥 나는 '이름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덕의 삶을 살기로 작심하는 순간 내 마음에서는 "음마, 갑자기 왜 그래? 그렇게 유난을 떨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왔잖아. 교회 다니면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대충 그렇게 사는 거지, 갑자기 왜 그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던데..."라는 사탄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위장된 그리스도인으로 사탄의 진영에서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 편으로 가겠다고 사탄이 놀랄 수밖에...

우리의 마음속 내면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며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훈련은 '침묵'입니다. 왜 침묵해야 합니까? 적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적에게 나의 정보와 작전을 다 떠벌려버리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통해서 말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해야 합니다.

사탄은 '소리'를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시끄러운 소음'에 점령당한 세상에서 '정적(靜寂)'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7665)

## 4. 자기 부인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에덴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남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창3:18-19) ‘땅’은 사람의 ‘마음’이고(마13:19) 그 마음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얼굴에 땀을 흘리며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돌자갈을 제거해야 씨앗을 키워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땅에 가득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돌자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 마귀가 밤에 와서 살뜰 뿌리고 간(마13:25)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입니다. 이 이기적인 의지(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진짜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흙은 인간 자신이며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땅(흙)을 경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땅을 경작합니까? 우선 큰 나무나 탱자나무부터 뽑아 내려고 하다간 힘만 들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작은 풀부터 뽑아내야 합니다. 나의 아주 작은 결점, 잘못된 습관, 예를 들면 단 것을 좋아한다거나, 말이 많은 것, 호기심, 참견, 험담, 사소한 거짓말, 게으름... 같은 것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수덕의 삶은 우선 나의 의지만을 만족시키려 하는 무절제한 습관이나 욕망이나 이기심을 버리는 작은 ‘자기 부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7666)

## 5. 마음을 정결하게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3:2-3)

우리는 마음에 쌓여있는 먼지와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마음을 정결하게(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더러운 바다와 창문을 깨끗이 닦고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성소(聖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소인 마음속에서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나고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

다면 성령님은 절대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약4:8)고 했습니다. 바울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후7:1)고 했습니다. 마가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독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막7:21-22)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길도 깨끗하리라”(마23:26)고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나 윤리 도덕은 스스로를 위해서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7667)

## 6. 하나님만 기쁘시게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세 종류의 본성이 있습니다. ①육적인 본성의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자신의 쾌락을 쫓는 사람이며 인간 본성 이하의 사람입니다. ②본성적인 사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③영적인 사람- 자기에게 해가 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인간 본성 이상의 고상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신령한 생각을 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천사들이 기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눅15:10)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5:48)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고 하셨습니다.

사막 교부들은 육적인 본성에 속한 것을 죽일 때까지는 자신에게 휴식도 주지 않고, 평안도 허락하지 않고 고행을 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을 찾아내어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5:17)

자신이 세 본성 가운데 어디에 속해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잘 판단하여서 만약 육적인 본성이나 본성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분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7668)



## 7. 좁은 문으로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동네와 마을에 들러서 가르치시던 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눅13:24)

넓고 화려하고 쉬워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다 우루루 몰려가는 ‘넓은 문’은 무엇입니까? 주로 칼빈주의자들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10:28). 설령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 회개를 시키시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을 대서라도 그를 천국에 데려가신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구원을 받는 일에 인간 편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면 왜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토록 힘쓰라고 하셨을까요?(눅13:24)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선행이나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쟁취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안일하게 한번 구원받았으니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지만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7669)

## 8. 쾌락을 탐하는 욕망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쾌락을 탐하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이익과 쾌락을 탐하는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친 듯이 추구하는 세속 가치관을 따라 나도 미친 듯이 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생긴 새롭고 고귀한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라.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며 돈 앞에 무릎 꿇는다. 돈이 안 되는 것이 없다. 요즘에는 돈 없으면 교회도 안 된다..... 돈에 미쳐서 세상이 돌아버렸습니다. 이런 세속의 욕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는 것입니다. 만나면 ‘돈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랑’을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쾌락에 대한 갈망’을 완전히 뿌리부터 파버려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을 짓밟아 버려야 합니다. 자신에게 엄격해야 하며, 육적인 자아가 난폭하게 요구하는 것을 눈썹만큼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나를 따라 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마16:24)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자기 부인은 괴로운 것이고, 쾌락을 탐하는 욕망은 좋은 것’이라며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쾌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당장 실행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7670)

## 9.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오기

수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쾌락을 탐하는 욕망’을 부셔버려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자기애(Self-love)라고 하며 ‘자신의 행복 또는 이익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입니다. 요즘에는 자만심, 이기심, 나르시시즘, 프라이드, 자존감 같은 단어로 바꾸어 쓰기도 합니다.

수 많은 성인들이 한결같이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사회가 자기보다 더 상위적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기에 대한 욕망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봅니다. 키케로는 ‘경쟁자가 없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들은 실패로 끝날 운명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을 사랑함으로 끝없이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악하지만, 덕의 원칙들을 얻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7-39)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오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자기’를 버리고 존재 중심이 ‘예수와 이웃’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좁은 문’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장애물은 단 한 가지 그것은 곧 ‘나 자신’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7671)

©최용우



귤 (사진:최용우)

## 귤 묵상

아내가 “하루에 귤 두 개씩 무조건 먹고 비타민섭취를 하세요” 라며 오늘 먹을 귤 두 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간다.

귤 사진을 멍뚱 찍어준다. 그리고 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굴려 보고 향도 맡아본다.

푸른 잎사귀 사이에 귤이 달린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귤꽃이 피고 어딘가에서 벌이 날아오고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와 작은 귤이 점점 자란다. 초록빛이던 열매가 황금빛으로 변하고 속으로 익어가며 맛이 든다.

귤 한 알에서 햇빛, 비, 구름, 바람, 눈... 그리고 귤 나무 사이로 지나다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아마도 제주도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귤 껍질을 벗기고 8쪽 속살을 쪼개서 하나 입 안에 넣는다.

방금 우주가 내 몸 안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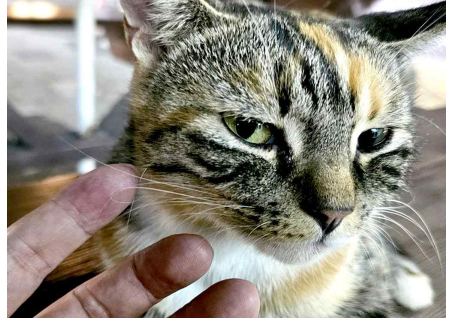
## 고양이 묵상

“아빠! <들꽃편지>에 꼭 한 달에 한 번씩 고양이 이야기 써 주세요”라고 들꽃편지의 열렬한 독자인 큰딸이 거듭 요청을 했었다. 독자의 요청이니 들어 주어야죠.

그래서 온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 사진을 다 찍는 중이다. 이 녀석은 썬본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얼쩡거리는 고양이이다. 손님들이 앉아서 라면이나 음식을 먹는 테이블이나 의자 위에 앉아 눈을 감고 ‘묵상’하는 고양이이다.

아주 도도한 녀석이다. 사람들의 손길을 피하지는 않는데 살짝 째려보며 ‘묵상’을 방해하지 말라는 듯 다시 눈을 감아버린다. 누가 거두는 고양이인지 아니면 길고양이인지는 그건 모르겠다. 누가 음식을 주어도 막 달려들지 않고 몇 번 밀당을 하다가 못이기는 척 먹기 시작한다. 까칠한 녀석!



## 교회 선택의 기준

만약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까? 아무 교회나 덜컥 갔다가는 큰일난다. 교회인 척 위장하고 있는 가짜 교회도 많기 때문이다.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뿐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완전 시골이 아닌 이상 세상에는 교회는 너무 많다.

먼저 주변에 아는 이들의 추천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지 않다면 평일에 그 교회에 가 보고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면 <교회 안내서>같은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아마 대부분의 교회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교회 안내서>그런 것 없다. 목회자의 관심은 온통 판 데 있기 때문이다.

날마다 운동을 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 동네의 어떤 교회 마당(주차장)에 똑딱거리더니 갑자기 거대한 십자가 탑이 세워졌다. 그런데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십자가 탑의 크기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십자가 크다고 교회에 등록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차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은 아주 중요한 선택 사항이다.



## 이 순간은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떨어진 낙엽 한 잎을 한 참 들여다 보다가 사진을 찍었다. 가을이 되자 나무는 잎사귀를 빨강게 물 들인 다음 미련 없이 잎을 땅에 떨어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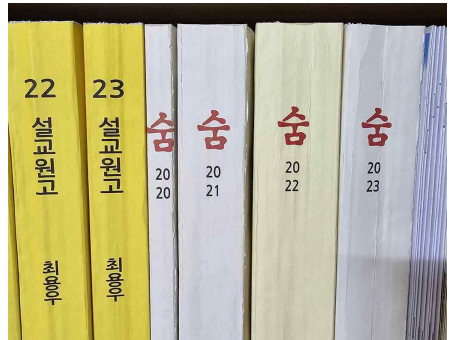
낙엽이 왜 빨간지, 왜 떨어지는지 그런 것은 요즘 인기 있는 챗지피티에게 물어보면 온갖 과학적인 이유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중요하지도 않음.

지금 나는 빨간 낙엽을, 그 경이로운 생명현상을 길을 가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내 눈으로 들여다보고 느끼고 감탄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는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가늠이 안 될 만큼 넓은 우주 공간의 지구별, '세종시'라는 곳, 길가던 내 앞에 마침 그 순간에 떨어진 낙엽,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보고 있는 이 우주적인 엄청난 '쇼'가 벌어진 순간

## 숨Sum

매주 편집하는 주보의 이름이 <숨>이다. <숨>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던 2020년 5월에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큰일이 있었다. 섬기던 교회에서 갑자기 나온 일과 평소에 황토로 지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 보고 싶었는데, 진짜 근사한 황토교회에서 후임으로 올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은 일이다.



그때,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을 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은 '숨결'대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후===3 숨 한번 쉬고, 떠나온 교회에 대한 마음의 후유증을 날려 버렸고, 황토교회의 초청도 정중하게 사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숨>쉬어지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자...

그래서 주보 이름을 <숨>이라고 정했었다.

## 와! 좋다

일본 선교사님께 보낼 노트북 택배가 도착했다. 일본에서는 구하기 힘든 몇 가지 프로그램을 깔아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미안하지만 미리 박스를 개봉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쪽 빠진 디자인이 정말 이쁘다. 엘지가 디자인 하나는 정말 잘 뽑는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쓸 것을 계산해 미리 기본 사양에 ssd를 1테라로 업그레이드하고 램도 하나 더 붙여 16기가로 만들었다. 사양만 따지면 내 책상 위의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고사양이다. 노트북 성능이 놀랄 만큼 향상되었고 반대로 가격은 톡 떨어졌다. 신기하게 전자제품은 갈수록 사양은 높아지는데 가격은 떨어진다.

문제는 이 노트북을 어떻게 일본에 무사하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다.

검색을 통해 방법을 찾아냈다. upi와 ems premium 연계를 통해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방법이 있었다. 지난주에 우체국 직원에게 'EMS프리미엄'에 대해 물어봤는데 접수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자료를 만들어서 접수를 받게 해야 한다.

## 새 안경

오래전에 홈플러스에서 아내 안경을 맞추다 덤으로 얻어왔던 돋보기 안경의 유리알 가운데 부분이 맨들맨들해져서 항상 구름이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

그래서 안경을 끼면 위쪽이나 아래쪽을 향해 눈을 크게 치켜 뜨거나 아래로 깔아 내린다. 그 모습이 나이든 노인 같아 보인다고 아내가 되게 싫어한다.

아내가 새 안경을 사주겠다고 돋보기를 버리라고 한다. 이쁜 아내를 노인이랑 살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순순히 안경점에 따라갔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안경 초점이 달라졌다. 책을 보느냐 모니터를 보느냐 텔레비전을 보느냐... 나는 책을 많이 보니까 책에 초점을 맞춰 안경을 제작했다.

책의 글씨가 또렷하게 잘 보인다. 아내의 얼굴이 더 예쁘게 보이는 것을 보니 안경사의 안경 만드는 실력이 대단하다. ©최용우



#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 ▲제628회 선운산(고창) 2023.10.30

아우 최용남과 함께 고창 선운산(수리봉 336m) 올랐다. 선운산은 원래 도솔산(兜率山)이었으나 백제 때 창건한 선운사(禪雲寺)가 있어 선운산이고 불리게 되었다. 도솔암은 선운사 계곡의 절경을 이룬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신라 진흥왕이 왕위를 버리고 도솔왕비와 중애공주를 데리고 입산, 앞에는 천인암(千仞巖) 절벽이 있고 그 사이의 계곡에 있는 굴(左邊窟)과 암자(도솔암兜率庵)에서 참선을 하며 살았다고 한다. 선운이란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이다.



전국에 불교인들이 살아생전에 반드시 한번은 가 보아야 하는 성지가 몇 군데 있는데, 전라도에서는 이곳 '도솔암'이라고 한다. 오늘은 시간이 촉박하여 '도솔암' 가는 것은 포기하고 블랙야크 인증지인 수리봉에서 정상 인증만 하고 내려왔다.

## ▲제629회 계룡산 2023.11.2

집에서 6시 50분에 나와 버스, 전철, 버스 세 번 환승하여 동화사 주차장에 도착하니 8시이다. 8:30분 양지 들산팀이 모두 모였다. 일출 사진을 찍기 위해 새벽에 관음봉에 올라간 최윤식 목사님이 산 꼭대기에서 기다리고 계시기에 부지런히 산을 올랐다. 10:30분 관음봉 도착 오랜 만에 양지 들산팀 모두 재회하다.



자연성릉을 타고 12:30분 삼불봉 도착 남매탐 방향으로 하산하여 동화사 입구에 있는 식당가의 '동화식당'에 들어가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자리 잡으니 3시였다. 오늘은 최윤식 목사님이 은퇴 기념으로 밥값을 내셨다. 훗날 오늘을 기억하며 추억하기 위해 이름을 기록해 둔다. (사진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정주일 장로, 최윤식 목사, 신예숙 권사, 최영만 목사, 최용우, 전화자 사모, 이상호 목사

### ▲제630회 비학산291 (일출봉252m) -2023.11.8

### ▲제631회 광덕산 -2023.11.23

8:30 공주터미널에서 이상호 목사님 부부와 사곡에 사시는 최영만 목사님 만나 광덕사 입구까지 갔다. 광덕사로 들어가는 입구 계곡을 포크레인이 끊으면서 계곡 정비작업을 하고 있었다.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광덕산은 이름 대로 덕이 있어 크게 어렵지 않은 산이라 일주문을 들머리로 출발하여 광덕사-팔각정-헬기장-광덕산 정상-장군바위-광덕사 원점회귀 하였다.

점심을 어디에서 먹을까 고민하던 찰라에 천안 예음교회 차영준 목사님께서 우리 일행에게 점심을 대접하시겠다고 하여 한참 천안을 향해 달려갔다. 양푼이 동태탕으로 늦은 점심을 맛나게 대접받고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고 왔다.



2023.11.23.(목) 최용우 최영만 전화자 이상호

### ▲제632회 비학산292 (일출봉252m) -2023.11.30.

### ▲제633회 용봉산(홍성)-2023.12.1

용봉산에는 정말 많은 고양이들이 살고 있었다. 등산객들을 계속 졸졸 따라다니며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야옹거린다. 숲 고양이 외에 대충 세어봐도 열 마리가 넘는 치즈가 얼굴이 비슷비슷한 것을 보니 근친 번식을 하는 것 같았다.



다행히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눈병도 없고 콧물도 안 흘리고 다들 귀여워서 만져보고 싶는데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는다. 손을 내밀었다가 어떤 놈이 앞발로 때려서 한 대 맞았다. ㅠㅜ

야생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야생성이 떨어져 스스로 먹이 활동을 못한다고 한다. 용봉산 고양이는 사람들에게 길들여져 완전 야생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아양을 떨어서 먹고사는 방법도 나름 저들의 생존전략이니 먹을 것을 쥐도 될 것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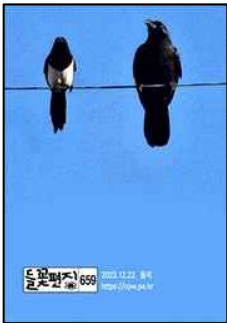




#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 ①동지 -가장 잠을 많이 잘 수 있는 날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잠을 가장 많이 잘 수 있는날? 동지부터 밤이 조금씩 짧아지고 낮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동지에 먹는 팔죽의 주재료인 팥은 신장의 기능을 활성화해 기력을 보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지를 작은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진짜 설이 오기까지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 ②표지사진 이야기

산책을 하는데 까치와 까마귀가 막 뒤섞여 전기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까치랑 까마귀는 거의 같은 새라서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지를 공유하다 보니 자주 투닥거리며 싸웁니다.

덩치는 까마귀가 훨씬 크지만 싸우면 까치가 까마귀를 압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까치는 집단으로 덤비는데 까마귀는 항상 도고다리로 혼자이기 때문에 성격이 드세면서도 동시에 매우 행동이 기민하고 떼로 달려드는 까치를 못 이깁니다. 까치가 번식기가 되면 까마귀가 몰래 까치둥지에

서 알이나 새끼를 낳을 하기 때문에 까치는 까마귀라면 아주 죽기살기로 공격을 해댑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먼저 까치를 공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사진:최용우)

##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들꽃편지20권-호박꽃호> 컬러510쪽 30200원 -2023.12.20

78.들꽃편지19권-유자꽃호 컬러510쪽 30200원 -2023.12.1

77.들꽃편지18권-사철채송화호 /컬러510쪽 30100원 -2023.11.6

76.들꽃편지17권-데이지꽃호 /컬러510쪽 30200원 -2023.10.4

75.여유일가-2022 (일기14) 컬러396쪽 23800원 -2023.9.15.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70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살림 드러내기 -2023.11월 재정결산

2023년 11월(1-30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1004 고종찬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양은희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조정옥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황성운 새벽기도 선한열매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교회 함안중앙교회  
28분이 1,000,000원을 흘려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 ✧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3.12.22.일까지 7694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79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숨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해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새로 나온 책

## 제20권 호박꽃호

이 쪽지는  
구원의 비밀과  
마음의 양식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들꽃편지〉제20권 호박꽃호  
최용우 편집 510쪽 30,200원  
교보문고 퍼플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햇볕같은이야기(<https://cyw.pe.kr>) 발행인 최용우가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얘기와, 주변 사람들의 글, 그리고 너무 난해하고 지적인 말씀 연구가 가득한 이 시대에,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팔딱거리는 싱싱한 묵상의 말씀, 속 깊은 신앙적인 고민들을 거침없이 털어 놓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편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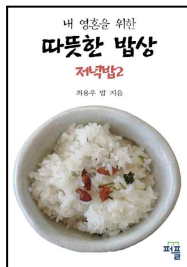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 선교지입니다. 〈들꽃편지 제20권〉은 제634호(2021.11월)부터 제651호(2023.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일 발행한 18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서히 수그러드는가 싶은 찰라에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일어나 가스, 곡물, 원유가격이 폭등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시기에 매일 만들어서 전국에 띄웠던 월간〈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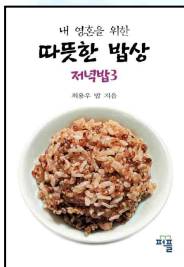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최용우 저서



## ⑥ 따뜻한 밥상-저녁밥2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어로 목상하기에 사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았습니다. 누가복음-요한복음을 목상합니다.  
17,300원 398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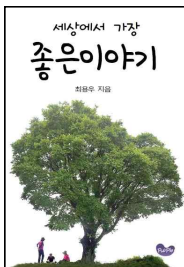
## ⑦ 따뜻한 밥상-저녁밥3

밥은 스스로 떠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알기만 해도 말씀의 밥을 자신의 말로만 들어서 자신의 고백으로 '아멘'을 할 수 있게 목상하였습니다. 사도행전-요한계시록을 1년 동안 목상합니다.  
17,000원 398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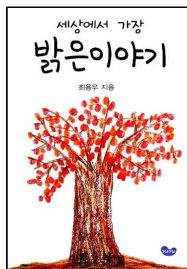
## 겨울 목상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 리얼리티(reality) 13년 동안 일상의 모습을 찍어서 '기독교비탕화면'을 만들었던 사진 중에서 겨울 사진 200장을 골라 목상글 글과 함께 편집하였습니다.  
13,900원 218쪽(컬러)퍼플



##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

매일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국의 14만 독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던 햇별같은이야기 아침편지 1호-1019호까지 4년 분량 1019편의 좋은 글을 읽기 좋게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24,000원 722쪽 퍼플



## 세상에서 가장 밝은 이야기

매일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국의 14만 독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던 햇별같은이야기 아침편지 1020호-1979호까지 5년분 960편 밝은 글을 읽기 좋게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23,900원 720쪽 퍼플



## 새벽우물(3판)

얼어붙은 내 영혼 내면의 바다를 깨부수는 한 자루 도끼와 같은 책! 총총히 맑은 물 채운 새벽우물! 햇별 1980호부터 3501호 까지 1422편 단행본 5권 분량을 한권으로 크게 묶었습니다.  
28,700원 878쪽 퍼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까이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서터(피징)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mailto: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지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59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